

# 사필귀錢? ... 노조의 타락

## 광주경찰, 8명 입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임 간부들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사업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핵심 집행부 간부들이 저지른 비리 행위라는 점에서 광주 노동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석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횡령

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모(53) 전 의장과 김모(53)·정모(59) 전 사무처장, 박모(44) 전 사무차장, 김모(여·43) 총무국장 등 전임 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등 이들의 보조금 횡령을 도운 혐의(어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로 광고회사, 호텔, 식당 등 거래업체 대표 2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애초 노 전 의장과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전 간부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 등은 노동절 기념대회를 비롯,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노사한마음등반대회, 한·일우호교류, 국내·해외 산업연수, 한·중 우호교류, 노사 대표자세미나 등의 행사에서 거래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절 기념행사 때 기념 수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전임 간부들 국·시비 보조금 1억5500만원 횡령

273만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리조트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객실과 식사 인원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의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들이 횡령한 광주시 보조금만 9개 사업에서 1억3300만원에 달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2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허위 구매 서류를 작성, 빼돌린 거래(8300만원), 구매 수량 등을 부풀려 빼돌린 과다 계상(4200만원)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했고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타락한 도덕성'을 짚나ראה 드러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 서류를 감사하면서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명절선물 구입비, 축·조의금, 지도위원 활동비, 회식비, 휴가비, 골프비용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시 보조금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알카드(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예외 규정을 들어 형식적 정산 서류로도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비리 행태

기념품 구입 거래업자와 짜고 허위서류 등 꾸며 리조트 세미나 인원·객실 부풀려 차액 돌려받아 차명계좌 활용 ... 명절선물·회식·골프비 등 '평평' 의장직 다툼 중 '횡령 내역' 우편물 보냈다 털미

수하면서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에 '정보관'이라는 항목과 함께 10만~20만원의 금액이 기재된 것과 관련, 경찰은 노총 관계자와 경찰 정보관이 정보공유를 위한 식비 등으로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담배 한 대 만” 봐주다가...

## 19살 절도피의자 14층 아파트서 투신 사망 경찰, 심리상태 고려하지 않은 업무처리 논란

10대 남성 절도 피의자가 경찰 검거 과정에서 투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이 인권보호 등을 위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도주 우려가 큰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업무처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모아아파트 14층에 사는 홍모(19)군의 집 배란다에서 김모(19)군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서울양천경찰 소속 형사 3명은 전날 양천구 일대 편의점에서 급콜을 출친 혐의와 관련, 김군이 은신 중인 친구 홍군의 집을 찾았다.

형사들은 홍군 집 앞에서 “김○○야”라고 말하자, 김군이 순순히 현관 출입문을 열어줬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김군은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김군은 “집을 쟁기겠다. 홍

군이 온다고 했으니,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형사들은 현관 출입문과 거실 유리창문 앞에서 김군이 담배 피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홍군을 기다렸지만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 관련법상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찰은 김군의 경우 체포에 순순히 응했고 도주와 자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군은 경찰이 친구 집에 들어온 지 20분 만에 담배 연기를 환기시키면서 배란다로 나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광주경찰은 북부소방서 등에 “사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불법 현수막 철거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7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 2지구 주변 도로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북구는 다음달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 경찰 순찰차가 신호무시? ... 횡단보도서 여성 치어

현직 경찰관이 순찰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었다.

7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오거리에서 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정모(52) 경위가 운전하던 112 순찰차가 김모(여·49)씨를 치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위는 이날 교대 근무를 위해 자신의 근무지인

산수파출소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경위는 경찰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뛰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 김씨 진술 등으로 미뤄 정 경위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김일태 영암군수 명예훼손...관련자 2명 법정에

##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

김일태 영암군수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김 군수가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 재판부가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최근 김 군수가 신문기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군수가 재정신청을 제기한 3명 중 신문기자 A(4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나머지 B(여·60)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A기자 등 2명은 김 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발행되지도 않았던 5만원권 지폐를 받았다는 부분 등으로 미뤄 진술의 신빙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A씨 등과 공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A기자 등은 지난 2012년 9월 2차례에 걸쳐 김 군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마사지 강사와 체육회役員 등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이들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요양급여 수역원 허위청구

광주 남구의회 의원 입건

광주 남부경찰은 수년 동안 수역원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남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의원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4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탈모 치료하다 얼굴에 화상” 30대女 한의원 고소

○30대 여성이 한원에서 탈모 치료를 받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35)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모 한원에서 탈모치료를 받다 레이저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증(기미 또는 주근

개)이 나타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피해가 컸지만 치료비 400만원을 환불해주는 게 전부”라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 유무를 따져보겠다는 방침.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고고투어 GOGO TOUR** http://gogotour.net

**환상섬 제주와 아시아나 항공이 함께하는 제주도 패키지**

<b>제주도 힐링투어 패키지</b>	
목포 선박(씨스타크루즈)	139,000원~
원도 선박(블루나래)	192,000원~
아시아나항공	216,000원~

**제주도 특급호텔 겨울 특가**

롯데호텔	2인	3인	4인	소인	2박3일	대한항공	제주발 13:25 - 제주발 11:55
	359,000원	325,000원	309,000원	315,000원	~375,000원	아시아나항공	광주발 15:40 - 제주발 19:15
	306,000원	289,000원	287,000원	255,000원	1박2일	대한항공	광주발 09:50 - 제주발 18:15
						아시아나항공	광주발 08:20 - 제주발 19:20

**해외 패키지**

- 쿠스온리버 뉴키 실속 4일(광주출) 459,000원~
- 청사 참가계 3박 4일 899,000원~
- 북경 명품 PKG 4일, 5일(무안) 299,000원~
- 상해 황주황산 PKG 3박4일(무안) 579,000원~
- 베트남 캄보디아 PKG 4박 6일 749,000원~ (하롱베이, 앙코르왓)
- 필리핀 PKG 3박 5일 1,049,000원~ (마닐라, 파타야, 팻타한)
- 홍콩 마카오 심천 3박4일 PKG 699,000원~
- 싱가포르 빈탄 5일 1,399,000원~
- 방콕 파타야 5일 999,000원~
- 괌 4일, 5일 849,000원~
- 사이판 4일, 5일 1,049,000원~
- 방콕 3박 5일(준특급) 1,299,000원~
- 필리핀 골프3박 5일(특급호텔) 1,549,000원~
- 세부 골프 3박 5일(리조트급) 899,000원~
- 코타키나부루골프 3박 5일 36층 1,299,000원~
- 일본 미야자키 골프 3박 4일 699,000원~
- 위해 골프 3일, 4일 529,000원~

**예약문의 T.1599-0968 F.062)443-1040** e-mail: gogotour@nate.com

**“프리미엄 빌라의 새로운 기준” 미림빌 선착순 분양중!**

**즉시입주**

- 최고급 도시형 생활주택
- 최고의 전망과 학군
- 엘리베이터 설치
- 친환경 편백나무 시공
- 최고급 인테리어 시공
- 고급 가스오븐렌지·식탁 설치

**1층 주차장**

27평 2세대	27평 2세대
21평 2세대	21평 2세대
27평 2세대	33평 2세대
21평 2세대	28평 2세대

**분양문의 011-611-1288 · 062-372-1607** **해남 동초등학교 후문 앞(성동리회관 옆)**